

“호남 출신 ‘한상’ 지역발전 동력 활용”

〈韓商〉

광주시의회 발간 '아시아 호남한상인 실태조사·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호남 출신 재외동포 200만명 ... '광주정신 세계화' 등 활동
호남한상센터 건립·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인적자원 활용을

호남 출신으로 아시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韓商)을 네트워크 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호남한상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호남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돕고, 지역 청년의 해외 취업과 창업의 토대를 만들자는 논의다. 특히, 호남 한상들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주축이 되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해마다 치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통한 '광주 정신의 세계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의회가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최근 발간한 '아시아지역 호남한상인 실태조사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 지역에서 호남 한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해외에 거주하는 740만여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호남 출신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지난 2013년 세계호남향우회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6년부터 목포, 전주, 광주 등지에

서 차례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화하고 있다.

이들 호남 한상은 해마다 10월 4일 '세계호남인의 날'을 열고, 해외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자랑스러운 세계호남인상 수상식,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회, 호남권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세계호남향우회 친선골프대회 등을 열면서 '고향의 정'을 나누고 '광주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실제로 심양과 상해, 대련, 북경, 칭다오, 천진, 단둥, 우루무치 등 12개 지역의 중국 호남향우회는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조선족 장학금 전달, 남북화해협력 및 북한돕기 등에 나서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호남한상인들은 한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7.2%), 오프라인 호남한상인대회

개최(27.7%), 호남한상센터설치(21.0%)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한상인 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남한상센터 설치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호남지역기업과 호남한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요구가 많았다.

호남한상센터는 전세계 호남한상인을 조직화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2) 운영위원장은 “호남 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내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인적 자원을 광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
한전공대·현안사업 적극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공대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잘 추진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설립인가 절차를 잘 밟아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 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 외에도 전남도의 다양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무안 국제공항 관련 사업과 다도해 해양 관광개발 계획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반영됐다”며 “(야당과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을 방어하고 관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남이 ‘쌀보내기’ 등 자체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남통일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당이 되어야 한다”며 “시설피해에 집중된 지원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 아시아문화주간 개막 ... ‘아세안의 빛, 하나된 공동체’



2019 아시아문화주간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 1관에서 유원준 (영남대 미술학부 교수) 예술감독과 사일로랩 (SILO LAB) 관계자들이 인터랙티브 키네틱라이팅 아트 작품 '아세안의 빛, 하나된 공동체'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1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 핵심
‘수영진흥센터’ 부지 뜨거운 경쟁

예산 490억원 확보 관건

광주시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유산)사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진흥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49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과 일선 자치구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치 경쟁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10월 말 5개 지자체를 두고 부지 선정 공모에 들어가겠다”면서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한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등 여러 업무가 있는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수영진흥센터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장과 훈련시설을 갖추고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센터 부지는 연면적 1만9634㎡,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는 국제 규격의 경영·연습·청소년·유아·다이빙 풀과 함께 다이빙 훈련장, 관람석이 들어선다. 2층에는 관람석과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 매점, 카페, 푸드코트 등 수익시설이 마련된다. 3층은 선수·지도자를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재활치료실, 의료실, 스포츠과학실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이외는 별도로 수영 관련 홍보물과 기념물을 전시할 수 있는 스포츠 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는 연간 9억2000만원, 운영비는 1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광주 5개 지자체

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12월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기준은 접근성이 편리하고 부지 매입비가 과도하지 않으며 건축 가능한 부지 면적이 충분한지 등이다. 부지를 선정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 부지매입 등 절차에 들어가고 2021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자치구마다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영대회 이전부터 자치구는 저마다 장점을 내세워 물밑에서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주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이 있다는 점, 서구와 남구는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점, 동구와 북구는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 춘천과 맞물려 정치권까지 가세해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전체 49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30%(147억원)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그나마 2020년 정부예산안에 수영센터 설계비 6억원이 포함돼 있지만 향후 국비 지원이 지연될 경우, 자칫 2021년 착공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2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면 연간 선수, 임원, 학부형 등 6800명이 이용하고, 전지훈련으로 연간 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입장료, 수익시설 등 수익은 연간 24억원으로 예측됐지만 수영 인구가 적어 이용객이 계획에 못 미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시가 져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성장세 둔화 ... 한은, 금리 연 1.25%로 인하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1.25%로 결정했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관련기사 14면>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소비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태양광 발전사업 부문 1위 기업

최고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완료
- ★ 한국전력 선로 확보 완료
- ★ 2019년 10월 현재 시공 중
- ★ 금융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 ★ 우수한 일조량(전남 신안군 일대)
- ★ 자연풍에 의한 여름철 온도 제어
- ★ 쌀 잘 안 쌓이는 겨울 환경
- ★ 주변가림이 적은 지형조건

상업운전 개시 임박!

- ◆ 적용 시스템
- ★ 모듈 캐나디안솔라 385wp 단결정
- ★ 인버터 카고 100kW급
- ★ 알루미늄 구조물
-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 상업운전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 ◆ 99kW 8기(2억4천5백만원/기)
- ◆ 499kW 6기(11억5천만원/기)
- ※ VAT 별도

파트너사 광주은행

대출 최대 80% 가능
※ 차주 소득 금액 및 담보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SUN友

(주)선우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www.solar-sunwoo.com

방문 및 현장답사 환영

T. 031-831-9795
H. 010-4596-3982